

광주 10가구중 3곳 “자녀 사교육비 월 100만원 이상”

■ 시교육감과 100분 토론회 참석 학부모 설문조사

“아이들 ‘진로 선택’이 가장 어렵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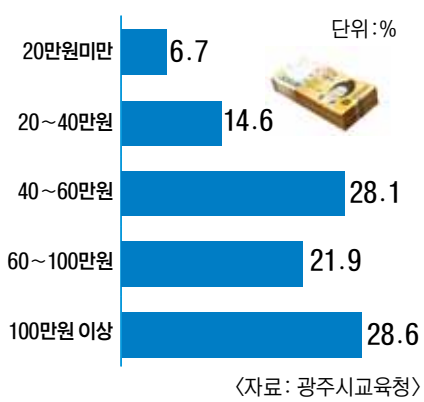
광주지역 학부모 10가정 중 3가정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 100만원 이상을, 5가정이 60만원을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일 광주 상무고에서 열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의 100분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즉석 조사 결과다. 이날 조사에 응한 학부모는 170여명이었다.

사교육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6%)은 매월 6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중 28.7%는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답했다. 40만~60만원이 28.1%, 20만~40만원이 14.6%, 20만원 미만은 6.7%였다. 이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가계에

서 지출하는 매월 사교육비 액수다. 자녀 교육에서 ‘진로에 대한 선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3명 중 2명(66.1%)은 ‘진로 걱정’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렵다고 꼽았으며 이어 교육비(15.5%),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9.8%), 부모의 교육관 차이(4.6%), 학교와 소통의 어려움(4%) 등의 순이었다. 손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4.2%는 ‘있다’고 답했으며, 5.8%만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69.5%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대상이 학부모회 임원 대표로, 상대적으로 일반 학부모보다 자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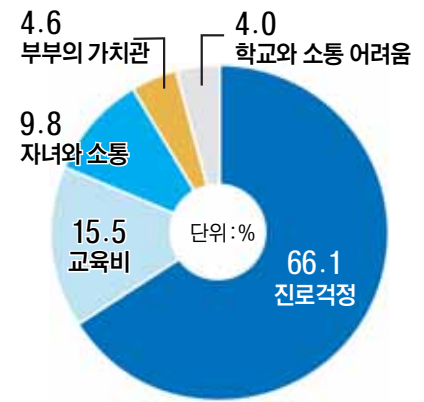
■ 매월 사교육비 지출은?



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7.9%, ‘만족’ 44.2%, ‘보통’ 18.0%로, 10명 중 9명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광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이보다 떨어

■ 자녀교육 가장 어려운 점은?



졌다. 절반 가깝게는 44%의 학부모가 ‘보통’이라고 답해 사실상 평가를 유보했다. ‘매우 만족’은 5.1%였고 ‘만족’은 37.7%로 나타났다. ‘불만족’도 13.1%나 나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털모자·목도리 중무장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6도를 기록한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앞길에서 목도리와 털모자로 중무장을 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성중 이설 문제 다시 뜨거워진다

시의회 상임위 본격 논의... 일부 동문들도 이설 찬성

시교육청, 116억 들여 진로진학체험센터 건립 계획

광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광주 북성중학교 이설 문제가 1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재논의 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는 10일 오전 10시 제234회 광주시의회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북성중학교 이설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이설

에 찬성하면, 동의안은 1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절차를 밟는다. 반면 3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동의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폐기된다.

북성중 이설에 대해 교육위원간 찬반이 팽팽해 예측이 쉽지 않다.

찬성측 의원들은 “학생수가 너무 적어 음악과 미술 과목은 순회교사가 수업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된다”며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학교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대측 의원들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인데, 그때마다 학교를 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작은 학교의 규모에 맞게 교과과정 등을 재편하고 도심 속 작은 학교로 잘 키우면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간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30일 광주시 북구 유동에 자리한 북성중을 남구 효천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북성중 이설계획 동의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효천2지구 내 이전 부지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부지 매입비(110억원)와 시설비(177억원)를 확보한 상태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성중 이설은 총동문회는 물론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북성중을 이설하고, 그 자리에 116억원을 들여 진로진학체험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교실 60실 규모로 광주와 전남·북 학생을 대상으로 연 이용 인원만 1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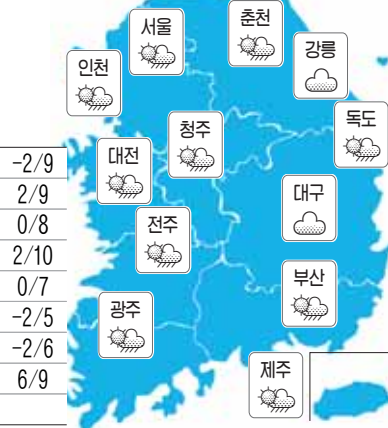
해돋이 07:29 해질 17:20
 일출 20:57 일몰 10:02

비내리는 긴 겨울밤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우량 5mm내외

◇지역별 날씨 (℃)

광주	1/8	보성	-2/9
목포	2/8	순천	2/9
여수	3/10	영광	0/8
나주	-1/7	진도	2/10
완도	3/10	진주	0/7
구례	-3/8	군산	-2/5
강진	0/10	남원	-2/6
해남	0/10	흑산도	6/9
장성	-1/7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	남서	0.5
남해	남동	0.5~1.0	남서	0.5~1.5
남부	남동	0.5~1.0	남서	0.5~1.0
서부	남동	1.0~2.0	남서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24	04:06
	22:03	16:48
여수	11:24	04:52
	17:25	23:23

◇주간 날씨

날짜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씨	☁	☁	☁	☁	☁	☁	☁
기온	3/7	0/5	-1/4	-2/5	0/5	-2/3	-4/1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뽑은 올해 우수·친절 법관은?

박강희 부장판사 등 9명 선정

피고인들을 변론하며 매일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좋은 법관은 누구일까.

광주·전남지역 329명 변호사들의 단체인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광주지방법원 법관(128명)에 대한 점수를 매겨 우수·친절 법관 9명을 선정, 9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박강희(50·연수원 21기·광주지법 행정 1부) ▲김춘호(43·27기·형사 1부) ▲황정수(48·28기·민사 2부) ▲임정영(44·28기·형사 11부) ▲소병진(42·31기·광주 가정법원 가사 1단독) ▲모성준(38·32기·형사 6단독) ▲박재형(35·34기·순천지원 형사 2단독) ▲최현정(여·36·36기·형사 3단독) ▲김대권(34·36기·민사 11단독) 판사 등이 뽑혔다.

이들 판사의 사건의 실제 파악을 위한 노력과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7.44점으로, 지난해(평균 92.27점)보다 다소 낮아졌다. 최고점은 98.89점, 최저점은 71.6점이었어. 평가는 공정성·품위와 친절·직무 성실성 등 3가지 항목, 10개 문항별로 5단계 등급을 매긴 뒤 수량화했다.

이번 평가에는 130명의 지역 변호사들이 참가해 법관 128명에 대한 평가표 1116장을 제출하는 등 참여도도 높아 4년째 진행되고 있는 법관 평가가 긍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변호사회는 ▲너무 많은 사건을 맡거나 짧은 시간대에 지경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 야기 및 빈번한 재판 지연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거나 직접 관계 없는 사람을 불러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는 재판 진행 ▲고압적 자세 등 부적절한 사례도 지적했다. 다만, 불친절 법관(하위) 3명은 선정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의 평균 점수는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